

2차 종전협상 바라보는 미·이란...호르무즈선 날선 대립

트럼프 "전쟁 곧 끝날 것" 파키스탄 실세 이란행...협상 급물살 협상 앞 신경전...美 호르무즈 압박 강화에 이란 '홍해 봉쇄' 경고

미국과 이란이 최근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된 이후 이번 주말에 2차 협상을 개최하기 위해 물밑 작업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동시에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이에 맞서 이란도 '맛볼' 위협에 나서면서 날선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방영된 포크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 생각엔(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그것이 종료되는 상태에 아주 근접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뉴욕포스트와 ABC 인터뷰에서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곧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이란이 2차 종전 협상 개최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파키스탄 등 역내 중재국들이 휴전을 연장하고 2차 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진전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 측도 중재국을 통해 미국과 간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히며 2차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2일 이란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에서) 돌아온 후에도 파키스탄을 통한 미국과 메시지 교환이 여러 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2차 회담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휴전 기간 연장도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의 '키맨'으로 꼽히는 실권자인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 등 파키스탄 대표단은 이날 테헤란에 도착해 아바스 아라크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했다. 이들의 회담은 이튿날인 16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 예비 회담과 관련해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중재국 파키스탄이 미국이 제시한 최종안을 들고 테헤란을 찾아 이란 측과 사전 의제 조율에 나선 것이냐는 관측이 나온다.

2차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와중에 이번

전쟁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 고조하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조치에 맞서 미국은 미 동부시간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을 통제하는 이른바 '역봉쇄'에 나서면서 압박을 강화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대이란 해상봉쇄에 협조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대응한다고 경고 발송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중부사령부는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에 회항 및 항해 중단을 권하면서 "봉쇄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무력을 쓸 것"이라며 "미 해군은 이행을 강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6명명의 병력이 탑승한 미군 항공모함 조지 H. W. 부시호가 곧 중동 지역에 도착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이 끝나는 21일께 부시호가 중동에 당도한다면서, 기존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제럴드 R. 포드호를 포함해 중동 지역에 항모가 3척이 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거세지는 군사 압박에 대응해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가 지속된다면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는 물론 홍해까지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국영 IRIB방송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담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알리 압둘라히 소장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봉쇄 조치"가 계속될 경우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란의 강력한 군대는 페르시아만, 오만해,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는 어떠한 수출입 활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군이 미국의 해상 봉쇄에 맞서 공식적으로 홍해 등 주요 해상 무역로 추가 봉쇄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카흐라만마라스의 한 중등학교 운동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튀르키예 보안군과 응급 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있다. /AP=연합뉴스

튀르키예 중학생이 총기난사...9명 사망·13명 부상

전직 경찰관 아버지 총 가져다 범행

15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중학생이 같은 학교 하급생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아나톨루 통신, TRT하베르 방송 등이 보도했다.

튀르키예 내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께 튀르키예 남부 카흐라만마라스의 한 중학교에서 총격이 발생해 학생 8명, 교사 1명 등

총 9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6명이 중환자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서도 3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져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학교 8학년(중학교 과정) 재학생 메르신 리(14)가 5학년 교실 두 곳에 들어가 총을 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튀르키예 내무부에 따르면 카흐라만마라주 주지사가 말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총격범은 총 5정과 탄창 7개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직 경찰관인 아버지의 총기와 탄약을 가방에 숨겨 학교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범인의 아버지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아근 귀를레크 튀르키예 법무장관은 현지 검찰청이 검사들을 배정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카흐라만마라주 전 지역의 학교 수업을 16-17일 이틀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전날에도 튀르키예 남부 산르우르파의 한 고등학교에 졸업생이 들이닥쳐 산탄총을 쏘 학생과 교사 등 16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중 베이징국제영화제 개막...韓영화 '클래식' 상영

중국 최대 영화 축제 중 하나인 베이징국제영화제가 16일부터 열흘간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베이징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영화제는 오는 25일까지 베이징 화이러우 엔터테인먼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국제 경쟁부문인 '텐탄상'에는 올해 139개국 및 지역에서 1천86편의 영화가 출품됐으며, 1차 후보작으로는 '숲속의 숲' 등 중국 영화 4편과 프랑스의 '펜', 영국의 '위험한 잠자리' 등 총 12편이 선정됐다. 텐탄상 심사위원장은 프랑스 배우 쥘리에트 비노슈가 맡았다.

개막식에는 감독 평사오강과 배우 저우동위, 선팅, 슈치 등 중화권 영화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슈퍼주니어 출신 한경도 개막 첫날

레드카펫 행사 초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영화는 당초 윤가는 감독의 '세계의 주인' 등 3편가량 초청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상영작에는 2003년 작품인 곽재용 감독의 '클래식' 한 편만 포함됐다.

'세계의 주인'의 경우 배급사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초청 사실을 홍보하기도 했고, 베이징영화제 소셜미디어 계정도 주목할만한 영화로 꼽으며 게시물을 올린 바 있다.

구체적인 이유나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개막을 앞두고 '세계의 주인'의 영화제 상영이 취소됐다. 일각에서는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중국 당국의 '선별적 개방'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BBC, 15년만 최대규모 감원...직원 10명당 1명꼴

"심각한 재정 압박"

영국 공영방송 BBC가 15일(현지시간) 심각한 재정 압박을 이유로 거의 10%에 육박하는 규모의 감원을 발표했다.

BBC는 향후 2년간 5억파운드(약 1조9천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면서 1천800-2천 명을 감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2만 1천300명인 정규직의 8.4-9.3%에 이르는 규모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 된다.

로드리 탈판 데이비스 BBC 사장대행은 일부

채널이나 서비스를 통째로 폐지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BBC 라디오 '미디어쇼'에 출연해 "우리는 모든 방안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5억파운드 규모로는 크고 어려운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탈판 데이비스 사장대행은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BBC는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고공행진하는 제작비용, 수신료 및 상업적 수입의 압박, 세계 경제 불안 등 많은 요인으로 우리 수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